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탐구
- ‘저지리’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產教育學科

金 度 賢

2021年 07月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탐구
- ‘저지리’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張 承 姬

金 度 賢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07月

김도현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年 07月

A study on making Jeju-type village project to
foster ecological community awareness
- Focused on Jeoji-ri -

Do-Hye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ee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1. 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ang Seung Hee,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4
II. 이론적 배경	6
1. 공동체주의에 대한 철학적 이해	6
2. 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구성요소	16
3. 생태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형성배경	18
III. 제주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역사와 생태공동체 의식	29
1. ‘마을공동체’의 개념 및 역사	29
2. 제주의 ‘마을만들기사업’의 배경 및 현황	40
3. ‘마을만들기사업’의 생태공동체적 의미 분석	44
IV. 제주의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저지리의 ‘마을만들기사업’ 가치와 평가	46
1.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 분석	46
1)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역사	47
2) 저지리 마을의 구성요소 : 역사, 자연환경, 문화적 자원	49
3) 저지리의 생태공동체 사업 현황	51
2.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 평가 및 제언	53
1)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 평가	53
2)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의 미래가치 및 제언	58
V. 결론	60
참 고 문 헌	63
Abstract	68

표 목차

<표 1>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6가지 가치	14
<표 2> Mcmillan and Chavis(1986) 4가지 구성요소 정리	17
<표 3>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생태공동체 구성요소 4가지	28
<표 4> 거주이동과 조달이동의 차이	29
<표 5> 지자체 조례별 마을공동체 개념 정리	35
<표 6>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운센터 주요 사업 정리	43
<표 7> 저지리 마을사업추진현황	4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흐름도	5
<그림 2> 매슬로우의 5대 욕구	8
<그림 3> 저지리의 위치	47

【국문초록】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탐구
- ‘저지리’를 중심으로 -

김도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장승희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생태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필요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탐구한 내용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역사, 사상, 종교, 국가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그 안에서 한국의 공동체의 형성은 마을에서 농업 생활을 기반으로 품앗이, 향약 등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활양식과 노동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대안적공동체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마을만들기사업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어떠한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마을공동체에 형태에 따른 담론은 공동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할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변한 사회에 적응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산업화로 인하여 인류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편리함을 얻었지만 반면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 및 생태계 변화 등으로 다양한 자연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변화로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갈등,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사회문제는 지역

사회의 공동체에 위기감을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류는 인간만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한계를 보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적 관계로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사회에서 생태공동체적 관점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 마을공동체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태공동체란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동체를 의미한다. 생태공동체에 소속된 마을의 구성원인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때 인간과 인간의 생활환경 모두 공생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태공동체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상태를 생태공동체의식이라 한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이 형성됨과 동시에 마을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진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역량 증진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찾고 마을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본 논문은 생태공동체의식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인 ‘저지리’를 중심으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긍정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마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구유출, 경제적 문제, 관광산업의 변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이 필요성과 이에 따른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쏟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지역사회는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생태공동체적의식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이 하나의 모델로서 모범이 될 것이다.

주제어: 생태공동체, 공동체주의, 생태공동체의식, 마을만들기사업, 저지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의 역사에서 경제산업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진화로 사회와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이를 흔히들 산업혁명¹⁾이라 한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인류의 일상생활부터, 문화 그리고 역사까지도 변화하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는 교통과 통신, 의료기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인간의 노동력 중심 사회에서 점점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AI(인공지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회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이중적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인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 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에게 부(富)를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과거 노동 시간에 비해 짧아진 노동 시간으로 휴식시간이 증가하면서 인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여유시간에 더 많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었다.

반면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겪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동의 이득이나 자신이 있는 환경과의 공존을 중시했던 전통적 공동체가 점차 축소되고 개인 중심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 생각을 하게 되

1) 산업혁명은 4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변화 했던 시기를 의미한다. 과거에 손으로 했던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생산으로 사업 구조를 변화시켰다. 증기엔진, 석탄, 철, 철도 등 획기적인 발명들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시켰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 대체로 1870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전기, 전화, 자동차 개발을 중심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시기이다. 컴퓨터, 인터넷을 만들어냈던 시기였으며 정보통신기술로 정보 생산·처리·유통의 효율성을 만들어낸 흔히 정보화, 디지털 혁명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바이오, 디지털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결합하여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만들어냈다.:이상미(2019), “산업혁명과 특히 패러다임의 전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pp.7~8

었다. 이러한 가치관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시켰다.

또한, 전통적 공동체의 축소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전통적 공동체는 한국의 공동체 특성에서 바라보는 전통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한국역사적 대표적 공동체는 마을공동체와 인보공동체(鄰保共同體), 도덕적 향약공동체, 가족주의적 혈연공동체, 그리고 결사적 공동체 등으로 볼 수 있다.²⁾ 한국의 공동체는 시대가 지나면서 종교, 사상, 문화 등에 의해서 형태가 변화되어 왔지만 정의, 의리, 윤리 등 그 근본은 항상 유지해왔다.

전통적 공동체의 축소와 동시에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 과제는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아닌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대안적 공동체란 기존의 공동체가 사회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대안점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변화하는 인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반도적 영향과 주변 국가의 다양한 이유로 많은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사회적 혼란기 시대 대한민국의 국민은 협력과 공동체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IMF, 기름유출사건 등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상황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여 국제적 재난을 이겨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한다.

사회와 산업이 변화할수록 세계의 심리적 거리는 좁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화, 의료, 산업 등 발달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했다. 우리는 세계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세계의 일환이 되기 위해 노력할 시기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세계에 하나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하나인 제주도’로 하향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제주도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이다’ 라는 상향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

2) 김홍석(1998). “한국적 공동체의 형성배경과 구성원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5

리의 작은 마을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제주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은 전통적 공동체가 아닌 대안적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형성해야 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마을 중심으로 형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사업을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국가에 정책,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마을에 성장을 위해 국가는 2003년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위원회를 출범했다.³⁾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되어 조례를 만들고 중간조직 기구를 두어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이란 각 지역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창출해 나가며 마을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역량을 갖추고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마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중심의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마을을 형성하는 주민들과 그 마을의 자원인 역사, 문화, 생태계까지 인간 대 인간 그리고 인간 대 자연과의 공생관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의 사물들과 공생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하며 그것을 제주도에 맞도록 제주형 공생적 생태공동체의식을 함양하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7957호)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초대 성경룡 위원장부터 7대 현재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다.

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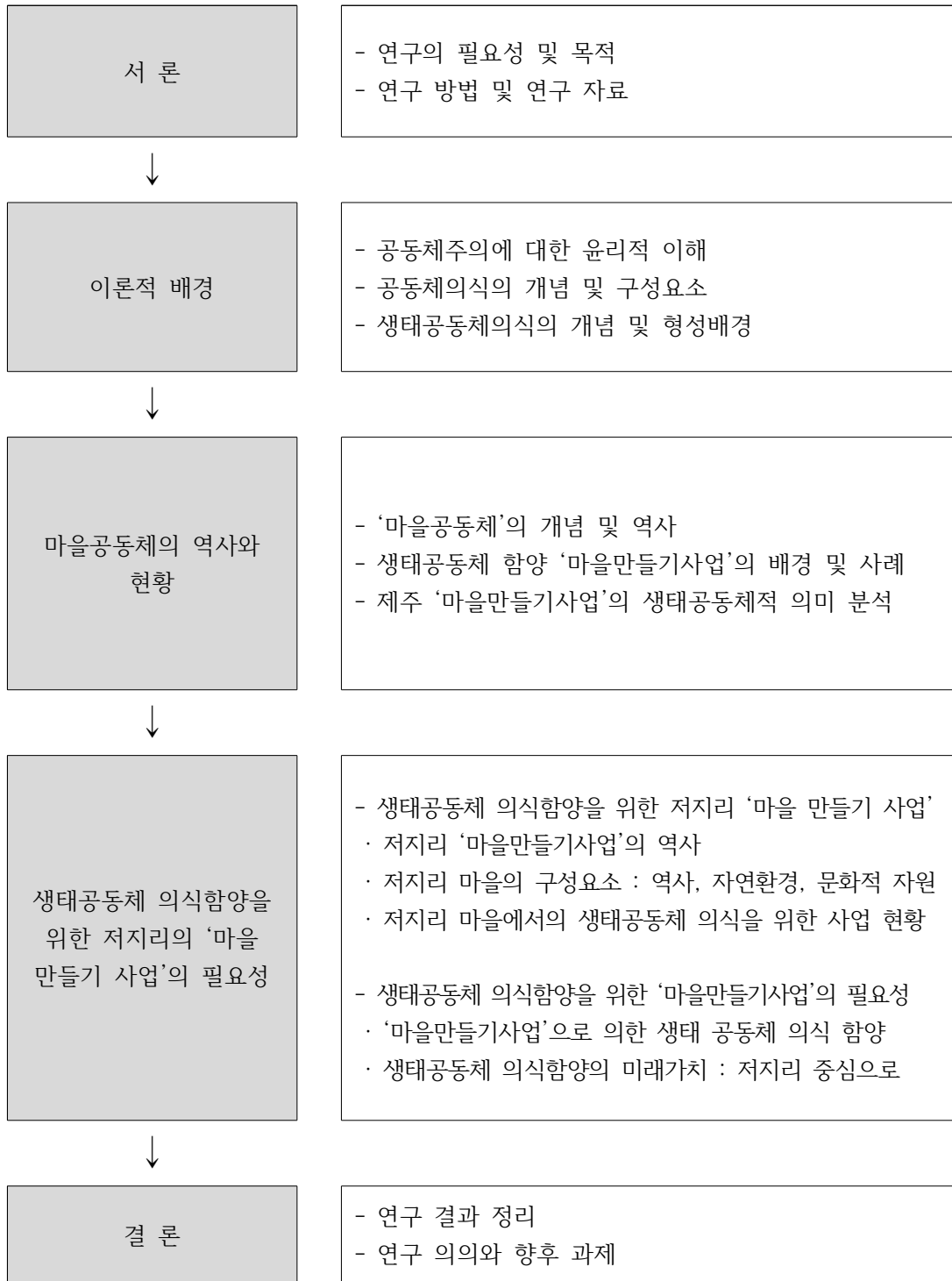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안적 공동체로서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지역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국가 법률 및 시행 계획 등을 통하여 어떻게 생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주에 맞는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함양을 하기 위해 제주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지리를 중심으로 현재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목적을 3가지의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생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구성요소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논문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주장하고자 한다. 둘째, 대안적 공동체형성을 위하여 생태공동체 의식 함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생태공동체함양의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미래정책과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탐구 연구”에 대한 연구 범위는 공동체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생태공동체의식에 대한 윤리적, 역사적, 구성요소 등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이후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분석 및 정리를 하였고 제주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인 저지리를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의 진행 과정과 공동체 사업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연구는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탐구하는 것이므로 마을만들기사업의 형태와 현 상황에 대해 연구를 하며 이론적으로 마을공동체의 대안점과 공생적 생태공동체의 정의와 의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타 사례들과 연구하고자 하는 마을의 비교을 통해 대안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방향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방법은 흐름도를 보면서 설명을 보면 쉬울 것 같다.

(그림 1) 연구흐름도



II. 이론적 배경

제2장에서는 본 연구를 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였다. 우선 공동체의 개념과 공동체주의에 대하여 철학적인 이해를 살펴보았다. 공동체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장인 생태공동체에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의내렸다.

1. 공동체주의에 대한 철학적 이해

1)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주의에 대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개념의 근본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공동체주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공동체(Community)의 사전적⁴⁾ 정의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김진아(2013)는 ‘일정한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속을 꾀하는 사회집단’이라 주장했다.⁵⁾ 심화섭(2016)는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주 내에서 특정집단이 같은 가치관이나 유사한 행동특성을 공유하고 비슷한 생활목적이나 생활요구를 가지는 지역적 사회집단은 한 묶음으로 정의했다.⁶⁾ 소은숙(2013)은 공동체를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하는 심성적·정신적 현상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과 함께 단순한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고도의 개인적 친밀성, 감정적 깊이, 도덕적 확신, 사회적 응집 및 시간적 연속성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는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에 가깝다 주장했다.⁷⁾ 공동

4) 『한국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05.30)

5) 김진아(2013),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6) 심화섭(2016),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1.

7) 소은숙(2013),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사회복지이념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0.

체를 영어로 community라 하며 14세기 영어권부터 사용되었다. 본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 commúnis([형용사] 공통적, 공동의, 공유의) 기원으로 발생하였고 같은 환경을 공유하며 공유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⁸⁾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치적인 동물(zoon politikón)”이다. 공동체를 이루는 동물들은 생존과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 생존, 욕구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판단 능력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생명체로 이러한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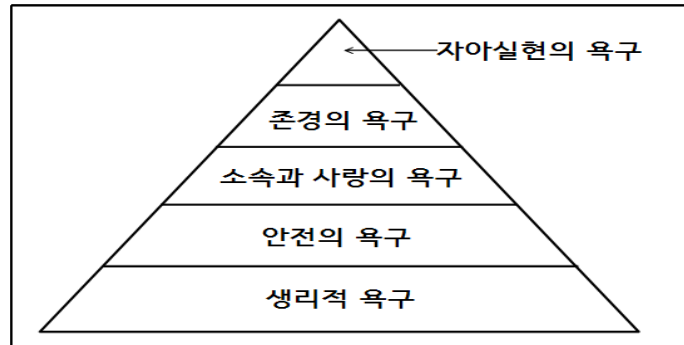
위에 내용에서 본 연구자가 정리한 공동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있다.

인류에게 공동체의 중요한 요점을 차지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 사회에서의 개인의 욕구를 얻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얻고자 노력했다는 것은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의 동기이론에서 주장하는 욕구단계설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다. 매슬로의 5대 욕구는 인간은 하위 단계서부터 상위 단계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 하며 모든 욕구를 이루기 원한다는 것이다. 욕구의 단계 중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인간은 어떠한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이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4단계에 위치하는 “존경의 욕구”는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타인과 함께 일하고 생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은 당연히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는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다.

8) 박정숙(2018),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p.10.

9) 하르트무트 로자, 라스게르텐바흐, 헤닝라옥스, 다비트 슈트레커(2017), 『공동체의 이론들』, 광노원, 한상원 옮김, 라움, 2017, pp.18-21.

(그림 2) 매슬로우의 5대 욕구



출처 :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p.246.

위 내용에 따라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공동체는 인간의 안정감과 다양한 욕구를 위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형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이익과 견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각자의 욕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사회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 인간의 공동체형성은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이해

공동체의 형태는 생활양식 및 종교, 그리고 사상적 이유등으로 다양하게 바뀌게 된다. 지역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연구하기 위해 서양권 국가와 동양권 국가의 관점과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과 인간의 생활사 등을 일반화 할 수 없지만 흔히 동양권 국가¹⁰⁾와 서양권 국가는 생활 양식은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도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관점의 차이는 고대시대부터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을 예시로 들어 동양권 국가와 서양권 국가의 공동체성에 대한 관점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어 타인을 설득시키는 ‘논쟁’ 문화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한 문화로 인하여 왕권의 힘보다 국민의 의견이 더욱 잘

10) 한자사용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의미한다.

수렴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지는 ‘호기심’을 당연시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특성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우주의 운행 원리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였고 물리학, 천문학, 기하학 등 다양한 문화, 교육적 업적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타인에 의식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중심으로 자연을 관찰하여 어떠한 원리를 발견하였고 기본 원리를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찾았다. 고대 중국 시대 개인의 자율성보다 공동체 구성원 속의 타인과 관계를 중요시하였고 인간관계의 조화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고대 중국인들은 자신이 있는 주변 환경을 개성있게 바꾸는 것보다 본인을 주변 환경에 맞춰갈 수 있도록 수양했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의 화합과 평화를 지키고 지배층에 순종을 통해 안녕을 느끼는 것을 중요시했다. 고대 중국 시대 ‘논쟁’이 하나의 교육이었던 고대 그리스와 달리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여 인간관계와 관련된 학문이 발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과거 예술작품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는 도자기에 흔히 전투, 경기 등 경쟁의 모습을 담았고 고대 중국에서는 평화로운 일상, 가족의 모습 등을 담겨 있었다.¹¹⁾

이러한 문화 및 역사에 따라서 동·서양 지역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점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공동체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서양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고대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고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 공자, 맹자를 선택했다. 고대 학자들의 주장에서 서로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바라보았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영웅사회의 의미가 강하였다. 그러다 보니 운명과 죽음 그리고 신의 명령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영웅사회에서 고전 사회로 변화하며 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폴리스 중심적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폴리스 중심적 사회에서 혈연 간 의무보다 폴리스의 아레테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은 아레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 이에 반면 고대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인 공자, 맹자의 주장은 가족과 국가는 다른

11) 리처드 니스벳(2004), 『생각의 지도』, 김영사, 옮김, 최인철, pp.27-34.

원리로 운영되며 가족과 국가의 관계는 비연속적이고 둘 사이 요구되는 덕 또한 다를 뿐이라 주장하였다. 가족은 단순 사욕을 채우는 집단이 아니며 국가는 단순한 공적 집단이 아니라 하였다. 그들은 인(仁)을 강조하였고 그것에 근본이 “효”이며 지배층과 가족의 아버지를 동일하게 지존으로 생각하였다.¹²⁾

이렇게 고대학자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가족 중심적이라기 보단 개인 중심적이며 가족과 국가는 개인의 정치적 사회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개인의 삶을 더욱 중요시여겨 공동체에서 개인의 주장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였다. 이에 반해 고대 중국의 경우 개인의 삶과 주도적 생활 보단 가족 및 국가 공동체를 중시했다. 이로서 공동체주의적 모습이 서양권 국가와 동양권 국가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는 사고방식과 관점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한국의 공동체의 형성 변화과정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는 장기간에 걸쳐 그 지역의 역사, 사상, 종교, 국가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공동체 형태가 가감(加減)되며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원시시대의 공동체는 신석기 혁명(농업 혁명)으로 농업이 시작되며 농업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농업의 시작은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을 하게 하였고 수렵가 채집 중심 생활에서 농경 중심의 사회로 생활의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인류에 농경사회가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잉여 농작물이 생겼다. 이러한 현상은 빈부격차를 만들었다. 또한 인류는 농업의 풍족과 삶의 안녕을 위해 하늘의 기도를 하는 제사를 올렸다.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이 생기며 계급이 탄생하여 평등사회에서 점차 계급사회가 되기 시작하였다.

원시시대 그들의 삶에서 공동체의 변화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의 시작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며 가족 단위로 구성된 사회인 씨족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씨족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거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씨족과 결혼을 하는 ‘족외혼’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켰

12) 김우진(2011), “아리스토텔레스와 공·맹에 있어서 가족과 공동체: 공동체주의 담론의 맥락에서”, 계명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pp.162-164.

다. 이러한 씨족사회는 원시시대의 공동체 중심사회의 확대를 보여주었고 “원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한국은 원시공동체부터 지속적인 공동체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에는 종교적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전통적 공동체’까지 가장 기본이 된 종교는 무교(巫敎)라 할 수 있는데 ‘원시공동체’에서 무교적 사상은 자연주의적 신앙과 인간중심의 사상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 졌다. 무교적 사상은 시간이 지나며 고대국가서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 풍수지리사상, 도교, 유교 등과 결합되면서 고대국가부터 조선시대까지 종교의 모습과 더불어 삶의 생활 원리까지로 이어져 오고 있다.¹³⁾

종교 뿐 아니라 사상에 따른 공동체의 변화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전통사상은 대체적으로 인간주의, 자연주의, 현세주의, 이렇게 3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으로 고대 풍수지리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등이 계승되며 무교에서 주장하는 기복사상, 불교에서 주장하는 불국토 사상, 유교에서 주장하는 도덕주의 사상 등 결합으로 도덕주의적 현실주의 또는 집단주의문화를 발전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상들은 한국의 다양한 공동체 모습의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마을공동체를 시작으로 신분공동체, 가족주의적 혈연공동체, 인보공동체, 도덕적 향약공동체, 결사적 공동체 등이 있다.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이념은 천인합일적 자연주의가 유교의 사상 영향으로 이상주의적 정치공동체를 지속시켜오는 것에 배경이 되었다.¹⁴⁾

이처럼 한국의 공동체는 종교, 사상적 이유로 변했지만 과거의 공동체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결합되면서 또는 본인들의 현실, 노동 · 경제시장에 맞도록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아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를 조화로운 생활양식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공동체에는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홍석(1998)이 주장은 ‘전통적 공동체’라 불리는 공동체는 조선시대의 흔적과 새깁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시대 당시 유교를 국교로서 받아들이며 정치적 통치 이데올로기이자 가족주의적 문화, 집단주의적인 성격은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현대의 전통적 공동체의 모습에서 조선시대 유교적 사상이 함

13) 김홍석(1998), “한국적 공동체의 형성배경과 구성원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p.2.

14) 김홍석(1998), 앞의 논문, pp.44-85.

게 전승되면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교사상에서 주장하는 “솔선수범하는 정신”과 “청렴과 절개를 지키는 모습” 등 긍정적인 영향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기득층의 독점체제와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모습이 남아있다. 이러한 문화들 중 부정적인 영향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차별”, “소수자 차별”, “노동 시장에서의 학대” 등 극단적인 경우 차별의 정당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말하였다.¹⁵⁾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현대의 공동체에서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 되고 있으며 국민 10명중 7명이 한국 내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¹⁶⁾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전통적 공동체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을 모두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4)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개념

대안적 공동체의 개념은 강수돌(2007)은 ‘현 자본주의 질서 속 생존 논리에 따른 단순한 적용을 거부함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인간 삶의 질서를 창조하여는 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¹⁷⁾

이동수(2013)은 행복을 기다리는 인간 본성에 따른 공동체적 모습의 하나로 기존 사회를 보완하는 기제로 인식하였다.¹⁸⁾ 최협외(2001)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산업사회에서 생태계의 파괴와 불평등한 확산을 막아야 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⁹⁾

위에서 나열한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본 연구자의 정리 및 주장은 사회가 발전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침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부정적 영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대안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광동(2014)에 주장에 따르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류는 경

15) 김홍석(1998), 앞의 논문, pp.2~3.

16) 『서울경제』, “10명 중 7명 ”한국 내 차별 심각“...”하지만 나는 종종받아“, 허진기자, 발행일 : 2020.06.19. (검색일: 2020.06.22.)

17) 이광동(2014), “농촌마을의 대안 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 상주00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재인용.

18) 이광동(2014), 위의 논문. p7. 재인용.

19) 송지선(2012), “대안적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 : 성미산 마을축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제적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불안정한 감정으로 인해 인류는 사회적 위기인식을 하게 된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서로 풀어나가며 사회구성원을 잘 이끌어 나갈 만한 리더가 필요할 것 같다.²⁰⁾고 하였다.

위의 주장들을 본 연구자가 정리한다면 다양한 사회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해야 하며 급격한 사회 변동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공동체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공동체주의에 개념

공동체주의의 사전적 용어²¹⁾는 운명 또는 목적, 생활 따위를 같이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김진아(2013)에 따르면 공동체주의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공동선²²⁾을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개인을 희생시켜서도 공동체 붕괴를 가져와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공공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책임과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도록 하였다.²³⁾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형성되며 사회가 구성된다. 공동체는 위의 설명과 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선에 대해 의무감을 가지게 되며 점차 공동체주의가 생겨났다.

공동체주의는 흔히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공동체주의 또는 개인주의에 대해 어떠한 주장이 맞는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개의 주장 모두 긍정적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서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아(2013)의 위의 논문에 따르면 공동체주의는 ‘사회의 질서’ 그리고 ‘자유’를 토대로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결속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공존해야 된

20) 이광동(2014), 앞의 논문, pp.1~22.

21)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검색일: 2020.05.30)

22) 공동선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23) 김진아(2013),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p.9.

다는 것이다. 에치오니(A.Etzioni)는 질서와 자율성을 조장하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칭했다. 이처럼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개인은 사회·역사적 상황에 놓이고 공동적 가치 그 이상의 결부된 공동체 구성원임으로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을 정리한다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선과 공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의 부는 분배를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을 위해 강제성이 들어가는 집단주의와 달리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며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여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주장에서 인류가 가져야 할 핵심요소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로 공동체의 불안과 분쟁을 만들지 말고 타협과 관용을 통해 합의점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6가지 가치

NO	지향 가치	내 용
1	공동체적 결속	공동체에 사람들이 귀속되면서 구성원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2	도덕성 회복	도덕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부딪히는 부정적 요소를 피하고 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줌
3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 및 제도의 강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공동체 속에서 더욱 잘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4	타협과 관용을 통한 합의	개인간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조직들이 가지는 관계에 있어 공동선을 전제로 협력하는 관계를 상정하여 투명한 공적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다.
5	공동선 및 공익의 추구	선의 개념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추구하고 있다.
6	공동체적 부의 분배	자본주의 사회의 심각한 빈부의 격차 해소의 방법을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의미에 더 큰 중점을 두고 부를 분배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소은숙, 2013 pp. 68-71 내용 표로 구성

위에 표와 같이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6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에 들어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둘째는 도덕성이 쇠퇴되

어 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덕을 길러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셋째는 사회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제도등을 강조하는 것. 넷째는 구성원으로 고립적 개인이 아닌 타협과 관용을 통해서 합의점을 가져야 하는 것, 다섯째 공동의 이익을 공동체가 가져야할 과업으로 생각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공동선을 주장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분배에 있어서 공동체적 분배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였다.²⁴⁾

위에 연구했던 내용을 정리했을 때 공동체주의는 상황,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과 공동선 그리고 인간의 평등함이라는 본 의미는 꾸준히 내려오고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타협과 관용을 통해 서로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6) 개인선과 공동선 그리고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로서 개인선과 공동선에 대해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개인선이란 개인의 자아실현, 행복감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공동선이란 공동의 이익 및 안정감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것인지 공동의 이득을 중요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이득만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과 의견을 탄압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주의란 개인의 자율성을 지켜주며 공동의 이득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성을 인정해 주며 개인을 차별하거나 탄압하지 않는 것이다.

위에 내용을 정리한다면 공동체주의란 공동선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지만 개인의 인권 및 행복을 차별하거나 탄압하지 않고 함께 이끌어 가야한다. 그러나 개인선과 공동선에 딜레마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다툼은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조율해야한다.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처럼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올바른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24) 소은숙(2013),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사회복지이념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pp.68-71.

2. 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공동체의식의 개념

공동체 의식의 사전적 정의는 집단이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개인도 공동체의 이익과 조직의 권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자세를 의미한다.²⁵⁾

다양한 학자들도 공동체의식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채성만(2020)은 공동체의식을 단순히 공동체의 인식을 넘어서 자신의 집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였다.²⁶⁾ Nisbet(1962)이 정의한 내용은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역사 속에서 문화생활을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사상, 감정, 견해 등이라 주장하였다.²⁷⁾ 고진숙(2019)은 개인이 특정한 장소 내에서 거주함으로써 본인의 욕구가 충족됨과 동시에 구성원들과 소속감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통된 감정을 형성하는 상태라 주장하였다.²⁸⁾

이러한 주장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공동체의식에 핵심적 요인은 2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2가지의 요인은 공동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같은 인간으로 느끼는 “감정적” 요인과 공동의 이익과 장소 등 “물리적”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형성된 공동체가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물리적, 감정적 요인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개인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물리적 조건을 이루기에는 크게 어려움과 변수가 없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 그리고 논쟁에서의 설득과정 등 다양한 감정적 소모가 필요하게 된다. 개인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선에 확고한 의지와 필요성을 가지고 공유와 더불어 신뢰 관계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가 구성된다.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선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된다. 현 시점 사회적 문제 및 해결 방안에 있어서 과거 상향적 정책, 제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과 상향식 제도의

25)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06.22.)

26) 채성만(2020),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29.

27) 채성만(2020) 위의 논문, p.29. 재인용

28) 고진숙(2019), “도시관광 재생사업에서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장소맥락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필요성 대두로 공동체주의가 강조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 간 논쟁과 협력을 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이 필요한 핵심요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2)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본 연구자가 주장하였을 때 공동체의식의 구성요는 Mcmillan and Chavis의 주장했던 내용이 가장 적합했다. Mcmillan and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이란 공동체의 문제를 개인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성원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들은 ‘공동체의식 - 정의와 이론’이라는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4가지로 구성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는 첫째,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둘째, 구성원의식(membership), 셋째, 공유된 감정적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 넷째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이 있다.²⁹⁾

<표 2> Mcmillan and Chavis(1986) 4가지 구성요소 정리

구 성 요 소	내 용
통합과 충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필요 부분이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고 받은 자원에 의하여 충족 될 것이라는 느낌을 의미
구성원 의식	구성원 의식은 경계를 두며 경계란 특성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경계는 감정적 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체에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공유된 감정적 연계	공동체의 공유된 기반을 가지고 형성되는 역사, 공동의 장소 그리고 시간을 함께함과 동시에 유사한 경험을 하겠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상호영향의식	상호영향력이라 하며, 공동체와 그 것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상호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더 매력을 느끼며 응집력을 가지기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주장한다.

출처 : 고진숙(2019) pp.22-26. 재인용

29) 고진숙(2019), “도시관광 재생사업에서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장소애착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0-22. 재인용

위의 내용인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공동선을 위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며 공동체 안에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어울리고 응집력을 가지기 위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물리적으로 환경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교육, 문화, 정책 등 사회적으로 구성원의 감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미래의 인류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생태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형성배경

1)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공동체

본 연구자는 생태주의와 생태공동체의식에 대해 주장할 때 가장 기초적인 학론이 브로펜브레너의 생태학이론(ecological theory)이라 생각한다.

생태학이론이란 인간과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상황, 환경 등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학문이다. 생태학 이론은 브로펜브레너가 체계화한 이론으로 인간의 발달은 “맥락 속의 발달” 또는 “발달의 생태학”에 대하여 연구하며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생태학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연구할 때 인간에 본성, 성격 그리고 행동만을 연구하지 않고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환경에 초점을 두어서 인간과 환경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학 이론의 개념을 근거하여 인간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환경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며 적응하게 되면서 진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환경에 의해 인간 본인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고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생태학 이론은 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문화 등 인간이 있는 환경을 중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통해 환경체계와 개인 간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여 인간발달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³⁰⁾

30)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pp.279-284.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생태학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은 수어지교(水魚之交)와 같은 사이를 의미한다. 생태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을 토대로 공동체의 형태를 설명한다면, 공동체를 주장할 때 인간과 인간의 집합체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본인이 생활하는 사회적·자연적 환경은 함께 다루어서 연구해야 하며 인간과 사회적 환경, 인간과 자연적 환경은 서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상호교류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태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적 환경이다. 사회적 환경이란 하나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된다. 사회적 관계망이란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어떠한 공통적 유대에 의해서 연결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사회 안에서 개인에게 사회적 지지와 동시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환경의 대표적인 예는 가족, 친척, 이웃, 직장동료, 종교단체, 자조집단 등이 있다. 둘째는 물리적 환경이 있는데 이는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환경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연적 환경은 기후, 지리적 조건 등이 있고 세분화 시키면 온도, 습도, 바람, 기압, 계절적 변화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위적 환경은 건물, 교통, 통신시설, 대중매체 등이 있고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생활양식, 문화수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시간과 공간이 있다. 시간이란 상호작용의 지속적 기간, 주기성 등 속도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공간이란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 거리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적 영역을 유지하고 그 경계는 가시적이고 때로는 존재가 인식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위하여 상호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¹⁾

이근홍(2006)의 책에서 주장하는 생태학이론에 대해 위의 내용을 정리가 필요하다. 생태학이론은 인간의 본성, 행동, 그리고 발달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함께 연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발달은 다양한 환경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31) 이근홍(2006), 위의 책, 동일 페이지 참고

생태학이론의 대표적 특징은 사회적환경, 물리적환경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발달하면서 이 3가지 특징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인간은 사회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또 본인이 있는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환경의 의하여 적응을 하게 된다. 물리적 환경에 의한 인간발달의 차이는 기후에 따라 의식주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발달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각자의 저절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타인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주장하는 생태학 이론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 연구자는 보고 있다. 공동체를 연구 또는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인간과 환경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생태주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산업 자본주의 인해 환경이 급속하게 오염되고 파괴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생태 중심적 흐름을 말한다.³²⁾ 생태주의에 대해 오종욱(2019)의 개념 정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에서 보여주는 생태적 흐름을 의미한다 주장하였다.³³⁾

위 생태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의 발달에는 인류의 교통, 통신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부정적 영향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다양한 생태위기를 겪게 되었다. 미래의 대안점을 찾기 위해 생태 중심적인 연구와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태주의적 학자들은 현재 사회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해결방법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바라보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의 근본은 인간의 욕심, 오만 등 부정적 감정이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 첫 번째 사회적 문제는 산업화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화 이후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증가하며 지구의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³⁴⁾ 산업화로 인해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인류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있다. 인류에게

3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06.22.)

33) 오종욱(2019), “생태주의 대학 이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6.

34) 『글로벌에듀』, “‘지구온난화 원인은?’ 산업화 이후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조진현기자, 발행일: 2019.09.27. (검색일: 2020.06.22.)

편리함을 주는 플라스틱, 자동차 등이 환경오염이라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돌아오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고기 생산의 산업화이다. 고기의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고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 등과 같은 사료의 필요한 농작물들을 대량 생산을 하며 농장의 확대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또한 식용 동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대량 사육을 하는데 이렇게 사육하는 동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온실가스의 14%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희소자원에 대한 갈등이다. 희소자원을 얻기위해 국가간의 갈등과 다툼이 이루어지며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희소자원을 얻고자 하여 전쟁을 시작하고 이로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들어가게 된다. 전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해 나라를 잃은 난민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연적, 사회적 문제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적 환경, 인간과 사회적 환경을 인정하고 환경에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생태적의식을 가지며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 및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2) 생태공동체의 개념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으로 많은 인권문제, 기후환경의 변화, 심각한 수준까지 온 자연재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생태보존과 인권보호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다는 생태공동체주의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생태공동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주장하고 있다. 이로서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생태공동체에 대한 개념, 주장 그리고 형태를 구상하고자 한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생태이론, 생태학 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인간과 생태(환경)의 공생적 발달과 발전의 중요한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생태공동체란 생태이론의 주장과 공동체의 개념이 합성된 용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가장 먼저 생태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관련 학문인 생

태학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학이란 생물체와 생물체를 감싸는 주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합적으로 다룬 학문을 의미한다. 생태학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이러한 논리로 생태공동체는 생태적 목표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³⁵⁾

위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은 생태학이라는 학문은 생물체와 자연환경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생물체와 그 것을 감싸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환경 모두를 포함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학의 가장 기초적 단계는 “도시텃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도시 텃밭은 가족이나 이웃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가꾸기 위해 도시 속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텃밭을 통해 자연이 주는 장점과 인문학적 변화 그리고 경제성을 함께 가져 갈 수 있다. 텃밭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적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본 연구자는 텃밭과 같은 공생적 생태공동체가 전통적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생적 생태공동체를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 또는 작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단어적 정의와 더불어 구체적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가장 대표적 생태주의적 작가인 웬델 베리에 생태공동체와 관련된 주장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웬델 베리는 시인이자 농부이며 문명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생명지역주의, 생태신학, 생태적 농업, 섭생, 지역사회, 공동체와 관련된 그의 주장, 그리고 산업자본주의가 생태계에 미친영향 등을 가지고 현대의 문명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기술보다는 자연의 중요성을 작품으로 통해 알리고 있다. 이영현(2016)는 웬델 베리의 작품을 가지고 생태공동체를 중요성을 보여준다. 웬델 베리는 산업경제적 특징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살림을 주요 운영 원리로 하며 장소에 뿌리 박은 지역공동체를 제시하였고 일곱 가지 요소를 특징³⁶⁾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가 훌륭한 경제와 살림을 실현할

35) 김동희(2005), “독일 생태공동체의 교육실태” 『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국중광·작설호 엮음, 월인, p.182. 재인용.

36) 이영현(2016), “웬델 베리의 생태공동체와 살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pp.7-11. 요약 ① 장소에 뿌리내린 농업 공동체로서 유동성이 아닌 정착에 그 가치를 둔다. ②

토대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³⁷⁾

웬델 베리는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농업과 가정 중심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하며 생태공동체를 주장하고 있다. 웬델 베리가 주장하는 생태공동체와 농업 중심의 전통적 공동체가 비슷하다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웬델베리의 주장에는 농업 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윤리적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다. 삶의 풍족함으로 고기의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동물공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물의 산업화로 착취가 시작되었다. 고기를 섭취하기 위하여 동물을 사육하고 이를 도축할 때 비인도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과거 뉴스에서 달걀을 얻기 위하여 닭을 사육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닭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커녕 감금틀에 가두어 달걀을 지속적으로 낳게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으며 감금틀 사육을 중단하라는 운동을 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동물사육 산업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개발을 하기 위해 동물들이 살고 있던 자연을 파괴했고 그 것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증가하였다. 자연재해는 다시 인류에게 돌아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었다. 이제는 자연을 동물들에게 돌려주면서 인류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적 생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진행했던 개발과 산업에서 웬델 베리가 주장했던 생태공동체처럼 농업과 가정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생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이 안에서 경제적 활동을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개발을 없애고 전통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친환경적인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서 자연과 공생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공생적 생태공동체는 인간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여 친환경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은 살림 정신과 용익권에 그 기반을 두는데 이는 단기적이익만을 추종하는 이방인의 삶과 대비된다. ③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④ 전통과 기억의 공동체이다. ⑤ 베리의 공동체적 삶은 자유로운 주인의 삶으로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피고용인 의 삶 혹은 조직의 삶과 대비된다. ⑥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이다. ⑦ 자신들의 장소보다 더 나은 장소가 없다.

37) 이영현(2016), 위의 논문, pp.7-11.

3) 생태공동체의식의 윤리적 필요성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우월주의에 대하여 서양, 동양철학에서 많은 지배적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에 있어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에 철학적 의미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다. 생태주의적 철학 또는 환경윤리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태도 그리고 행동의 방식을 주장하는 네스의 근본주의, 북친의 사회생태주의 등의 생태주의, 생태철학 안에서 인간이 해야 하는 당연함을 보여주는 윤리적 요소를 주장하였다.³⁸⁾

인류는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는 있는 자연관³⁹⁾을 확고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해 보존과 개발 그리고 생활원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제도, 법규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산업화 시기만 했어도 친환경적 자연관 보다는 인간의 개발욕구, 인간의 편리성, 급진한 발전 등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합당한 일로 생각하였고 발전으로 다양한 자연물들이 파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집을 잃은 동·식물들이 증가하였고 ‘도도새’, ‘파란영양’, ‘독도 강치’, ‘과가’ 등 멸종하였다. 더 이상의 인간으로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개발보다는 보존의 목소리가 더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자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느끼는 것도 한 몫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 또는 미디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위해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을 나누어 논쟁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서로의 주장을 따로 보게 되면 양쪽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설득이 되지만 서로 논쟁할 때 하나의 답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의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연관으로 우리는 생태계를 철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태철학은 행동당위를 추구할수록 윤리학에 근접하며 철학내부적 환경윤리와 합류하게 된다. 우주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자연을 인간의 것으로 생각하여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우주에서 최상의 우월한 존재로 생각

38) 조정옥(2005), “이상적 생태주의적 자연관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환경 윤리적 고찰:독일 생태공동체의 예”『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국중광·작설호 엮음, 월인, pp.49-51.

39) 자연관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에 대한 관념 이나 견해를 의미한다.

하면서 자연을 하위의 위치로 생각하면 안되며 우주의 모든 존재의 개성과 특징을 존중하며 평등한 존재로 인지 해야한다. 만약 인간중심적으로 자연을 활용하게 된다면 생태적 파괴와 인류의 파멸의 위험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생태윤리학적 관점에서 자연 그리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⁴⁰⁾

맥클로스키, 블랙스톤 W.T. Blactstone, 오덤 등의 주장으로 생태윤리학의 필요성을 바라보면 야생 환경, 자연현상의 보존생, 동물의 도덕적 권리, 고갈 자원의 현대 인류의 권리 및 필요성 존중, 환경오염에 대한 의무, 인구성장에 대한 의무 등 다양한 의문점들에게 대해 생태학적 윤리학의 문제는 전통윤리학의 의무와 도덕적 원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주장하였다. 패스모어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윤리는 새로운 것이 아닌 친숙한 윤리학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태학적 재난의 일차적 근원은 탐욕 그리고 근시안적 사고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⁴¹⁾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 동양의 철학적 차이는 분명 보인다. 서양철학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유신론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신은 창조주라는 이론으로 세계의 불가시적인 정신적 주인이다. 이에 전체자연의 거대한 탈생명화가 일어났다. 자연에 대한 감정합일은 수백 년간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는 프란체스코운동에 의하여 자연과 인간의 형제관계가 일깨워지게 된다.⁴²⁾ 이에 동양철학에서 주장함은 인도 윤리에 따라 모든 생명들의 의인화가 아닌 자연 그 자체에 감정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물들은 하나의 연대적 고통 공동체를 이루고 모두 고통을 받는 하나로 인식한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사상은 서로와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그 내용의 뜻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양이 모두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자연관에 대한 확고한 사상과 환경윤리적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태윤리적 사상은 범국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이며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여 현재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40) 조정옥(2005), 앞의 책, p.62.

41) 위의 책, pp.62-63. 재인용.

42) 위의 책 p.77. 재인용.

43) 위의 책 pp.77-78. 재인용.

생태공동체의식을 윤리적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전쟁, 혐오, 등 강압적인 태도가 아닌 조화, 협력 등을 통한 화합적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함을 생태공동체의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생태공동체의 필요성 대두

생태공동체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 예로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를 들 수 있다. 그녀는 16살에 2019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녀는 청소년으로 학생이자 환경운동가이다. 그녀는 스웨덴의 폭염과 산불을 겪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스웨덴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목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가졌다. 그녀의 환경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질주의적 사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 재생산 가치에 대해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지역 불균형,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식의 함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이 사회의 변화로 인해 바뀌며 대안적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며 공동체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생적 생태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공동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5) 생태공동체의 구성요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개념과 구성요소가 달라진다. 본연구에서 주장하는 생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인 생태공동체가 추구하는 내용은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생

태계 위기에 대해 생태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자연환경과의 공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⁴⁴⁾

드볼과 세션즈는 생태공동체에 특성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5가지 특성은 첫째, 권위주의를 타파하여 공동체 구성원간 평등과 상부상조하는 것, 둘째, 폭력적 행동이 아닌 평화주의적 비폭력성 운동을 하는 것, 셋째, 인간을 둘러싼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배려 넷째, 자립적 영성⁴⁵⁾(종교)을 통한 마음 수행 다섯째, 유기체적 전체주의 총 5가지의 내용을 주장하였다.⁴⁶⁾

모든 사물과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서로 뭉쳐져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은 깊은 이해관계 속에서 생태공동체는 형성된다. 생활방식부터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연대를 의지를 가진다.⁴⁷⁾ 드볼과 세션즈의 5가지 특성과 생태공동체의 추구하는 바를 함께 연계하여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생태공동체의 구성요소 정리했다. 생태공동체의 구성요소는 첫째,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 둘째, 친환경적 생활 셋째, 자연친화적 교육활동 넷째, 상향적 제도화 이다.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이란 차별과 혐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여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이유는 서로의 사상, 이념 그리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함이다. 이에 타인의 인종, 성별, 종교, 성정체성, 신체조건, 외모, 나이, 언어, 출신지 등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적 생활이란 농업의 사회, 경제화를 의미한다. 과거 농업은 판매의 목적과 생활의 목적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 농업을 통해 자급자족을 하였고 부족한 것은 돈으로 또는 물물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농업활동이 필수적이었던 과거에는 농업토지가 많았으며 무조건적인 발전으로 농업토지를 파괴할 수 없었다. 현재 농업을 생활화 하여 도심속에서도 텃밭을 가꾸어 필요한 작물을 기

44) 권선형(2005), “독일 생태공동체와 유토피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국중광·작설호 엮음, 월인, pp.137-138.

45) 영성이란 눈에 보이는 세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 전통사회에서는 영적세계를 인정하였지만 데카르트 이후 인간에게 한정을 지으며 점차적으로 자연은 탈영성적 존재로 규정되었다.(임홍빈, “기독교 생태신학의 시각에서 본 독일 생태공동체의 신과학적 자연영성”, 『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국중광·작설호 엮음, 월인, 2005, p.25)

46) 조정옥(2005), 24페이지 같은 책, p.73. 재인용.

47) 권선형(2005), 앞의 책, p.137.

르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권유한다.

자연친화적 교육이란 현재 스마트폰, 인터넷의 발달과 과한 교육열로 학생들의 건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가 아닌 자연에서 교육을 받고 자연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의 환경교육을 통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향적 제도화란 국가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이를 마을 또는 개인의 지원 또는 보조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마을 공동체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4가지 생태공동체 구성요소가 본 연구의 가장 큰 핵심이다.

<표 3>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생태공동체 구성요소 4가지

구 성 요 소	내 용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등한 존재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과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전통적 공동체의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구성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친환경적 생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심에서도 친환경적 생활을 위해 텃밭가꾸기, 등산로 걷기 등 1차산업 또는 자연환경과 문화생활을 융복합 시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자연친화적 교육	학교에서 벗어난 마을 안에서 농촌, 마을탐방 등 자연환경 및 인성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마을이 곧 학교가 되며 아이들과 자연환경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상향적 제도화	국가, 지자체에서 획일화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국가,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출처 : 본 연구자의 주장 정리

Ⅲ. 마을 공동체의 역사와 현황분석

1. ‘마을공동체’의 개념 및 역사

1) 마을의 개념 및 의미

마을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한다.⁴⁸⁾ 마을의 시초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으나 현재와 같은 형태의 마을을 가진 시기는 신석기시대라고 할 수 있다. 원시시대 생활방식은 주로 이동하며 생활을 했다. 이동 생활에서도 생활전략이 필요했다. 이동 전략은 크게 거주이동(Residential mobility)과 조달이동(Logistical mo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거주이동과 조달이동의 차이

구분	시대	특징
거주 이동 (Residential mobility)	구석기 시대 (한반도 중심)	사냥, 채집 품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부족한 현상이 생겼을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조달 이동 (Logistical mobility)	신석기 시대 이후 (한반도 중심)	정착생활과 사냥, 어로가 함께 이루어 지고 있을 시대에 물과 같은 특정 필요 자원이 있는 곳에 거처를 삼고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현상

출처: 소상영(2013), 앞의 논문 pp.11-12. 본 연구자 표로 구성

거주이동이란 부족하거나 사냥, 채집 등으로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전체 집단이 자원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달이동이란 필수자원인 물과 식물, 등이 위치한 곳을 근거지로 삼고 집단 중 일부의 구성원만 자원을 얻기 위해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48)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49) 소상영(2013),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p.11-12.

한반도에 처음 인류의 시작인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와 뿔석기를 활용하고 사냥과 채집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 부족한 자원을 찾기 위해서 전체 집단이 이동하는 거주이동 생활을 했다. 주로 이동생활을 했던 생활 모습에서 가족단위 또는 소그룹으로 이동을 했었고 한 장소를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을 형성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농업혁명(식석기혁명)이후 신석기시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 농업과 어로 중심으로 정착생활을 했다.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생활을 하여 일부의 구성원만 자원을 얻기 위하여 조달 이동 생활을 했다. 이러한 정착생활을 통해 신석기 중기와 후기를 지나면서 소규모의 집단이 작은 촌락 형태로 마을을 만들었다.⁵⁰⁾

인류는 장소는 바뀌어도 마을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생활하였다. 이러한 마을은 그 모습과 의미는 조금씩 변하였지만, 현재까지 마을을 이루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마을은 ‘촌집회소(村集會所)’ 또는 ‘접사(接舍)’의 명칭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접사’란 한자의 풀이로 말하자면 사귀며 머무르는 장소라는 의미가 된다.⁵¹⁾ 마을의 전통적 의미를 연구자가 해석한다면, 마을은 하나의 공간에서 사람들간의 화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 바라볼 수 있다. 현재의 마을의 의미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마을에 대한 정의로 보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 문화 ·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 따른 정의에 대해 연구자가 정리한 마을은 나의 생활공간이며 타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모두를 함축하여 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에 대한 정의는 전통과 현재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 속에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마을 형성과정

한반도에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 넘어오면서 그 안에서 작은 촌락들의 생활도 변화하였고 자연에 기대며 마을공동체를 이뤘다. 자연에 기대며 공동체를 이뤘다는 증거 중 하나는 토착 무속신앙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을공동

50) 김영준(2020), “신석기 시대 뿔석기 기술과 생업활동: 한강 유역 주거지 유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7-158.

51) 신진동(2008),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체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모습은 다양한 고고학적 유물들을 볼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와 기후이다. 농사를 지낼 때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게 되면 한 해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하늘 또는 자연물의 제를 지내며 농업 및 생활의 안녕을 바라며 풍년이 오기를 바랐다. 이러한 시대에는 제사장 즉 공동체의 리더를 중심으로 마을을 구성해 나갔으며 구석기, 신석기시대에서 변화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이처럼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마을은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마을이 마을을 정복하면서 크고 작은 마을들이 모이게 되며 조선⁵²⁾이라는 하나의 연맹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로써 과거의 마을로 시작하여 연맹체 국가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원시시대 마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중심 사회에서 연맹체 중심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부족국가가 형성되었다.

부족 국가들은 가족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이루어진 ‘씨족사회’였다. ‘씨족사회’는 같은 혈연과 같은 조상을 토대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대가 흐르고 인구가 증가하고 대(代)가 많아짐에 따라 한 조상의 자손이라도 여러 씨족집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씨족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씨족집단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각 씨족집단은 다른 씨족집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각기 명칭이 두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성(姓)의 개념은 있었다 할 수 없지만, 씨족 명칭이 성(姓)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⁵³⁾

씨족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조선이란 국가까지 전승되었다. 현재 전통마을이라 정의되는 마을들은 조선의 씨족 마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⁵⁴⁾ 유교적 성향이 강했던 조선의 전통마을은 씨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자연적 등 다양한 이유로 조선사람들은 입향을 하여 그 곳에서 정착하면서 마을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마을들은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⁵⁵⁾

52) 고조선을 의미한다.

53) 황한영(2014), “한국성씨유래담의 유형과 가문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10.

54) 신진동(2008),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

55) 낙천리는 1660년 여산송가금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질의 점토를 찾아 안착한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불미업(대장간)이 이뤄지었다(출처: 낙천리 아홉곳마을홈페이지)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전통적 마을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농업에서는 사람 또는 가축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공동체는 농업 즉 노동과 관계를 가져야 했다. 공동노동을 위해 두레, 품앗이 등 다양한 협동노동공동체가 생겼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유대감을 가지며 전통적 공동체를 만들어졌다.

이러한 마을과 공동체의 형성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조선사람들은 마을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으로 보았다. 조선사람들의 자연과 조화로운 형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마음은 건축문화에서 보여줄 수 있다. 그들은 지형에 순응하고 자연지형을 따로 두지 않고 동일하게 생각하며 자연의 모든 현상을 받는 것이 아닌 적절히 조절하며 자연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며 자연질서의 흐름을 흩어놓지 않는 건축 방식을 사용하였다.⁵⁶⁾ 조선의 건축문화 즉 주(住)문화를 보면서 인간은 자연의 하나임을 인정하였으며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적 관계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인식하는 마을은 농업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공유하며 서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씨족사회를 추구하며 만들어졌다. 또한 마을에서 노동을 통해 공동체를 서서히 만들었으며 다양한 노동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아 전통적 마을은 노동력을 공유하며 서로 돕고 돕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 마을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적 관계를 지향하였으며 무의미하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마을의 주민들은 조화와 협동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마을공동체'의 개념

마을을 형성하면서 마을의 구성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마을공동체'라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대해 박정숙(2018)은 마을은 농·산·어촌의 오래된 촌락만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내렸다. 즉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간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의 안착하여 씨족간 마을을 이룬 곳들이 있다.
56) 신진동(2008), 위의 논문, p.183.

것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이근미(2019)는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같은 의미로 두었으며 안산시마을만들기조례에 맞추어 주민 개인의 자유 및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정의내렸다.⁵⁸⁾ 성기호(2015)는 공동체마을이라고 칭하며 학자들의 정의에 공통적으로 정의를 내린 내용으로 공동체마을은 “특정 목적과 공통적 지향점을 가지고 구성 공동체가 하나의 일상적 주거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계획되면서 계획과정과 입주 후 주민참여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동생활시설을 갖춘 것”이라 개념을 정의하였다.⁵⁹⁾

다양한 학자들이 내린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본 연구자가 정리한다면, 마을이란 장소에 공동선을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마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마을공동체라 정의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정의를 내렸던 ‘마을공동체’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별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알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활동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2항과 3항에 ‘마을공동체’의 정의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자치도의 ‘마을공동체기본원칙’은 제3조에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①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②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③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⁶⁰⁾

57) 박정숙,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pp.9-10 재인용

58) 이근미,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한 요인에 관한 연구: 안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정책경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12

59) 성기호(2015), “공동체마을의 사회자본과 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p.10.

60) 서울특별시(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9.12.31.][조례 제7381호, 2019.12.31., 일부개정] 참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마을공동체’란 제2조(정의) 4항에 근거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1.) ‘마을공동체만들기’란 동법 5항에 근거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마을 공동체 기본원칙은 5가지로 ①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②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③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⑤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⁶¹⁾

경기도 시흥시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라 명칭을 하지 않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라 하여 ‘마을만들기사업’과 동시에 마을공동체를 위해 잘 설명되어 있다. 제2조(정의)에 따르면 ‘희망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희망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민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 정의되어 있다. 동법의 기본 이념은 제3조에 근거하여 있는데 ①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②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③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⁶²⁾. 이처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시흥시 등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을 대체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에 필요한 정의와 기본원칙은 마을 주민의 주체성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을 담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공동체마을 등 지칭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마을주민들이 존중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가 마을단위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1) 광주광역시 광산구(주민자치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4.12.31.][조례 제1155호, 2014.12.31., 일부개정] 참고

62) 경기도 시흥시(주민자치과),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시행 2016.7.7.][조례 제1555호, 2016.7.7., 일부개정] 참고

<표 5> 지자체 조례별 마을공동체 개념 정리

조례명	담당부서	개념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 담당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의미	① 주민간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 지향 ②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③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④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관산구 주민자치과	서울특별시와 같은 개념 명시	① 주민간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 지향 ②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③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④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⑤ 환경과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과	희망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의미	①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②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 신뢰와 연대의식 바탕 ③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 존중 ④ 환경과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출처 : 지역별 조례를 본 연구자가 정리

3) ‘마을공동체’의 현대사 배경 분석

전통적 농업 중심의 ‘마을공동체’는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를 걸쳐 현대사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현대사 구분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4개로 구분되었다.

(1) 1950년대

일본의 진주만 습격사건 이후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차례를 걸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Little boy)와 팻맨(Fat man)이라는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고 일본의 강제로 점령당했던 한반도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했다.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의 의하여 대립적 이데올로기와 체제로 인해 38선이 그어지게 되며 독립 후 얼마 못 가 2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다. 결국 남·북이 각자 국가를 선포하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 38선을 넘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1953년 07월 휴전 협정이 체결하기 전까지 한반도에는 재산적, 인명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으며 휴전 이후에도 그 피해를 수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황폐해진 토지와 인명피해로 기본적인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한국은 원조물자 및 미군에 받는 미제 물건으로 삶을 유지해야 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들은 예의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가치관은 생존을 위하여 실용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쟁 이후 국민들은 반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으며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보단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자유주의를 선택 한다” 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로써 반공으로 인해 사람에게 가치관에 대한 존중과 이해 대신 차별과 혐오적 부정이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4.3사건과 같은 제노사이드의 피해가 생기게 되었다.

(2) 1960년대

한국국민에게 있어서 전쟁의 휴유증은 지속적이였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공비 소탕’등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⁶³⁾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민주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민주당 당원과 1,000여명의 시민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자 시위를 일으켰다. 시위는 4월 11일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후 시신이 안치된 도립 마산병원에 300여 명의 중고생이 모여 시위를 시작하였다.⁶⁴⁾ 사회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들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63) 이해령(2016), “겨울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외침”, 『한국현대 생활문화상 1960년대 근대화와 군대화』, 창비, pp.13-14.

64) 오제연(2016), “4·19혁명 전후 도시빈민”, 『한국현대 생활문화상 1960년대 근대화와 군대화』, 창비, pp.33-43.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였다. 4월 19일 광주의 오전 시위는 고등학생만의 시위였으나 오후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7명이 사망하였다. 광주뿐 아니라 부산, 서울, 등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것을 4.19혁명이라 부르며, 민주주의와 가난에 극복이란 목적으로 국민들의 권위를 찾기 위한 표현이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들어 가난을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돌리고 노동을 강조하였다. 이후 한국전쟁피해 복구를 위하여 제공했던 각종 대책 및 시설들을 감축시켰다. 국민들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시장에 들어가 생계를 위한 호구책을 찾아야 했다. 이 시기 저임금에 기초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농촌경제는 어려워지고 젊은 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의 대규모 도시 이주로 인해 도시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도시 빈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⁶⁵⁾

1960년대는 전쟁 이후 빈곤한 사회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국민들은 다양한 노동운동을 해야만 했다. 그들의 빈곤 퇴치 운동과 평화시장에서 스스로 불을 쬐운 전태일의 분신은 그 시대 고통받던 도시 빈민들의 “살고 싶다는” 외침 이였다. 이 시대 운동은 지식인이 아닌 빈민들의 협동과 함께 싸우자는 의지인 국민의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계속되는 가난과 부정부패 등으로 시위 및 쿠데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회는 혼란과 불안을 조성했다. 이로서 공동체의 모습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농의 격차와 노동운동 등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공동체에 대한 투쟁보다는 삶에 대한 투쟁이 강했을 사회로 볼 수 있다.

(3) 1970년대

1970년대는 유신시대가 핵심이였다. 이 시기는 총력안보태세 확립이라는 가치 아래 국민총화, 총화단결을 일상적으로 외치던 시대였다. 국민들은 새마을운동과 개발정책의 성공으로 복지 국가의 실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에 비해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농민은 고향인 농촌을 떠나게 되었고 산업전사라 불리던 노동자들도 목숨을 걸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 총화 단결을 외치지만 불신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65) 오제연(2016), 위의 책, pp.49~56.

인하여 공동체적 의식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국외의 상황도 빠른 변화가 있었다. 1969년 7월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 갔다.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정부는 안보문제에 더욱 철저하게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무력화로 인하여 억압적 지배체제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개헌을 도모하던 당시 정권에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요 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유신시대에 국가는 국민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개인을 규율·감시하고자 하였다. 대중들은 유신체제가 만들어낸 상호불신과 감시체제하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러한 삶은 국민들 개인마다 침묵하기도 일탈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운동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⁶⁶⁾

1970년대는 중동의 건축붐과 월남전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의 경제의 기반이 70년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과 빈부격차, 지속적인 노동운동 등은 사회의 불안함과 불평등을 조성하였다.

(4) 1980년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군사독재의 한 형태이며 70년대 박정희 체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한국적 신자유주의가 태동하던 시기로 보고, 경제운영의 방향성을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개편하려고 한 김재익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었다. 1980년대 문화적 부분이 상당히 발달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획을 그은 것은 컬러 텔레비전이 생겼다. 또 이 시기 프로야구 개막, 아시아게임·올림픽 등 체육 부분에서도 성장하게 되었다. 체육 분야와 더불어 대중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 부분에서도 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문화의 발달이라는 점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정권은 총과 칼, 폭력으로 탄압하였으며 이 뿐 아니라 노동, 민주화, 차별에 맞서 다양한 투쟁들이 나타나던 시기였다.⁶⁷⁾

66) 허은(2016), “불신의 시대, 일상의 저항에서 희망을 일구다”, 『한국현대 생활문화상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미니스커트』, 창비, pp.13-31.

67) 김종엽(2016), “1980년대 5월에서 6월로, 그리고...”, 『한국현대 생활문화상 1980년대 스포츠공화국과 양념통닭』, 창비, pp.13-28.

(5) 마을공동체의 현대사적 배경

1945년 한국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의 길과 동시에 38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군사통치를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한국은 초토화가 되었으며, 이로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 그리고 국토의 황폐화가 되었고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통적 공동체의 모습은 사라지고 빈곤과 전쟁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이 증가하였다. 1950년 국민들은 공동체의 형성보다 개인의 생존에 더 강하게 관심을 가져야 했으며 국가정책은 UN과 미국 그리고 그외 국가들의 도움으로 무상구조정책을 펼쳐야 했다. 이 시기에는 경제, 사회적 발달을 기대하기에 부족했다. 1960년 무상구조에서 근로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며 가난한 농촌에서 벗어나 도시로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했으며 도시 빈민이 축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정치인들의 장밋빛 공약으로 오히려 도시 빈민의 목을 졸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빈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살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국가에게 내야만 했고 이어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1960년대는 산업화의 시작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운동과 빈민구제를 요구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1970년대 경제의 발달이 눈부시던 해였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과 실천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였다. 점차 마을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문화적 발달과 민주화에 대한 갈망의 성공을 했던 시기이다. 문화적 발달의 큰 계기가 되었던 컬러텔레비전이 나왔으며 아시아게임·올림픽 등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였지만 독재에 일어나 민주화 운동 또한 진행되어 과거에 했던 민주화운동 보다 대규모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국민의 고통과 죽음으로 현재 민주주의의 꽃을 필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한국은 광복부터 전쟁 그리고 고동의 산업화까지 5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한국의 공동체 형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공동체에서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와 달리 인간 중심, 경제와 민주화 등 거시적인 체계에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마을공동체의 변화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 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은 40년 동안 광복과 전쟁 그리고 발전을 이루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 속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공동체 변화는, 공동체가 사회적 격동 속에서 변화해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류적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자연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다.

2. 제주 '마을만들기사업'의 배경 및 현황

1) 마을만들기사업의 개념 및 과정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은 김진아(2013)에 의하면 일본의 '마치즈쿠리'라는 용어에서 직역된 말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지역에 맞게 살기 좋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삶의 장소인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면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모든 활동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⁶⁸⁾

한국은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독일의 30년에 걸친 “라일강의 기적” 보다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며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다. 급속한 성장과 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반면에 농·어촌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도시화가 생겼다. 이 시기에 정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하였고 아파트 위주의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였다. 정부는 양적 성장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으며 빈부격차, 전통적 공동체 축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만들어냈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지역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이 행정계획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또는 마을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함으

68) 김진아(2013),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pp.24-25.

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⁶⁹⁾

마을만들기사업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주민으로서 마을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하였지만 그 효과는 굉장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불편한 것부터 고쳐나가면서 시작되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노력과 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중요하다. 마을주민들이 마을사업을 진행할 때 초창기 자본은 대개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창기 자본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며 문화적 향유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 근거는 법률과 조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의 마을주민들은 법률과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는 정치인은 마을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2) 조례(법률)적 배경 및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01월 07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⁷⁰⁾ 조례상에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중간조직 기구를 설치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있다. 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하고 같은 주민들에게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원칙을 확인해 보았다. 기본원칙은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문화보전·환경과의 조화를

69) 김덕은(2020),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간 비교 분석을 박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p.2.

7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2015.10.06. 전부개정 했으며 2019.12.31.에 일부 개정했다. 소관부서는 특별자치도행정국 자치행정과이다.

통해 후세대와 공존·공영을 지향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역주민, 지역사회 및 행정간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⁷¹⁾ 이러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제주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이에 조례를 근거로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을 설립하였다. 본 기관은 마을과 행정의 중간 교량의 역할을 하며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같은 조례에 제4장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에 나와 있으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⁷²⁾

- ① 지원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②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 ③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④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 ⑤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 ⑥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 ⑦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 ⑧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 ⑨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 ⑩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조직 활동적 배경 및 현황

제주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의 중간조직으로서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다. 본 기관은 조례의 근거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마을주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2020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모다들영사업, 수눌음사업, 하간디사업, 혼디모영사업, 느영나영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다양한 마을들은 마을에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원을 받고 있다.

71)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시행 19.12.31.][조례 제2416호, 2019.12.31., 일부개정] 참고

72) 위의 조례

<표 6>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정리

NO	사업명	사업목적	기대효과
1	모다들엉	-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한 마을 공동체 형성 -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2	수놓음	-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마을의 현안문제 해결 및 다양한 공모사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공동체 회복과 마을의 의제를 주민 주도로 추진하여 마을 활력 - 주민주도의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3	하간디	- 사업 추후 마을 만들기 사업 의 지속가능성 지원 - 홍보를 통해 많은 마을과 공동 체가 마을만들기 사업 적극 참여 유도	-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모색 -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정보 접 근의 다각화 추진
4	흔디모영	- 마을활동가 양성·운영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 화하는 건전한 마을공동체 형성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 - 마을활동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착 지원
5	느영나영	- 지역 공동체 조성지원을 위해 제주의 가치 공유 및 지역사회 와 더불어 사는 지원체계 마련 - 정착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정착주민과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실 태 파악 - 실질적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과 정착주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 으로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⁷³⁾

73)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jejumaetul.or.kr> (검색일: 2020.05.10.)

3. ‘마을만들기사업’의 생태공동체적 의미 분석

마을만들기사업이 생태공동체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앞서 주장했던 생태공동체 4가지 구성 요소인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 친환경적 생활, 자연친화적 교육, 상향적 제도화 이렇게 네 가지와 연계지어 정리했다.

첫째는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은 타인의 성별, 거주지, 장애, 성적지향, 나이 등에 의해서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고 이해와 존중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합의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대체적으로 이주민과 선주민, 여성과 남성 등 평등하게 마을의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에 의견을 모으고 마을이 지니는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며 서로 존중하며 회의 진행한다. 이해와 존중을 위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교육을 받거나 지속적인 평등한 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는 친환경적 생활이다. 자연 속의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경우 농업을 하며 친환경적 생활이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도시에서는 부족한 토지와 많은 인구밀도로 친환경적 삶을 살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 또는 마을 주민들은 친환경적 먹거리를 위해 유희공간에 텃밭을 가꾸고 있다. 이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의 하나로 볼수있다.

셋째는 자연친화적 교육이다. 시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어릴 적부터 익힐 수 있어야 미래 우리의 산업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대두될 것이다. 현재 다양한 마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농촌체험마을” 등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 환경 등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마을이 하나의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

마지막은 상향적 제도화이다. 과거와 달리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하향적 제도화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식 및 역량이 증가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여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마을 활동가(마을코디네이터)과 농촌퍼실리테이터 등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4가지 구성요소로 마을만들기사업을 보았을 때 아직은 마을주민들의 생

태공동체의식 함양에 대해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등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마을주민들도 생태공동체의식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마을활동에 대한 역할도 증가함으로 추후에 진행되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생태공동체 특성에 맞도록 제안하고 활동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IV. 제주의 생태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저지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치와 평가

1.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 분석

본 연구에서 저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저지리는 2004년 행안부의 ‘정보화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2006년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저지리의 대표적 농작물인 딸기를 활용한 딸기수제비 만들기, 딸기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들로 관광적·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뿐만아니라,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의 자원을 찾고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을사업의 참여하고있다. 저지리가 친환경적 마을만들기사업의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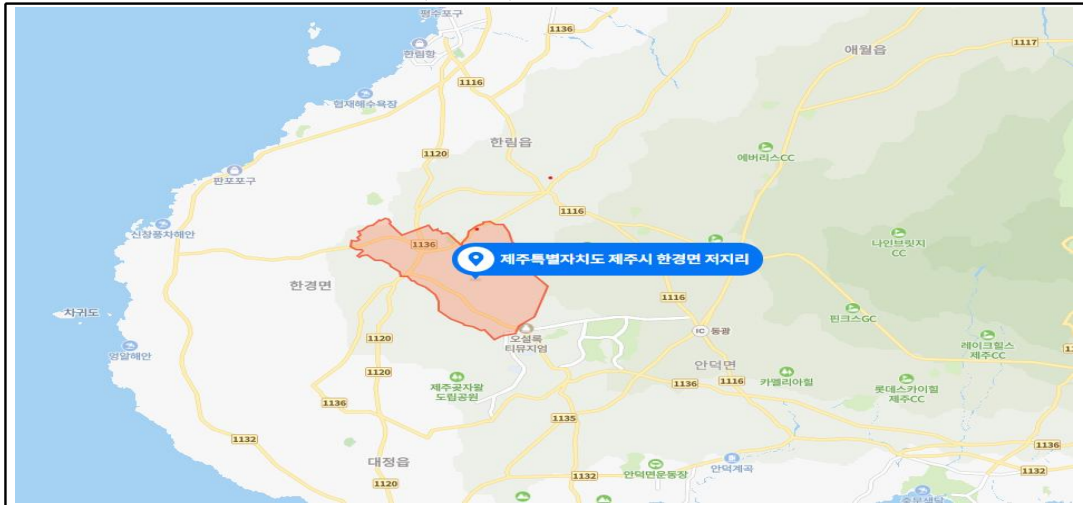
둘째, 저지리 마을은 자연,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저지리는 곳자왈을 비롯하여 가메창오름과 마중오름이 있고 2007년 현대미술관과 2016년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이렇게 제주 자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곳자왈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저지리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지리의 인구는 한경면 15개 리 중 두번째로 많다는 점이다. 2019년에 따르면 한경면의 총인구는 9,037명 중 1,239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⁷⁴⁾ 저지리는 과거 용천수가 부족하여 사람이 거주하기 단점이 많았던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자연적 이점과 예술에대한 장소로서 인정받고 관광적 효과로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가지 이유로 저지리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 생태공동체적 구성요소 네가지를 비교하여 어떻게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되며 생태공동체적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욱 필요할지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74)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9년 주민등록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

(그림 3) 저지리 위치



출처 : 네이버 지도 참고 / 저지리는 한경면에서 중산간에 위치 하고 있다.

1)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역사

저지리는 행정안전부 사업인 정보화마을사업을 처음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정보화마을사업이란 인터넷과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 정보화시스템에 소외된 지역인 농촌, 어촌, 산촌 등에 초고속 인터넷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였고 전자상거래, 정보콘텐츠 구축 등으로 마을의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⁷⁵⁾ 이후, 2006년 농림부 사업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007년 행정안전부 사업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2008년 농림부 사업인 ‘권역단위종합정비(농촌마을종합개발) 윗뜨르권역 사업’ 2014년 ‘색깔있는 마을 육성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체험시설공사’, 2014년 저지리 ‘농촌체험마을정비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생태체험시설 사업’, ‘저지곶자왓 탐방로 조성사업’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⁷⁶⁾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저지리에 있는 저지오름이 2005년 6월 생명의 숲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생명상(대상)을 받았다. 저지리의 대표적 문화적 특징 중 하나로 마을 안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인마을로 덕분에 2013년 서

75)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화 마을 <https://www.invil.org>. (검색일 2020.05.31.)

76)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jejumaeul.or.kr>. (검색일: 2020.05.13.)

울 대학로, 인사동, 인천 개항장, 과주 헤이리에 이어 다섯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오름과 꽃자왈이 그대로 살아있는 마을에 위치한 문화예술인마을에는 작가의 작업실, 갤러리, 야외공연장, 현대미술관 등 구성되었으며 예술과 자연을 한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태적 이점과 문화적 강점을 활용하여, 저지리 마을 주민들은 ‘웃뜨르권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관상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수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한다.⁷⁷⁾

위의 내용과 더불어 저지리는 자연과 문화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농촌체험휴양 마을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적·문화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지리 주민들의 노력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열정은 더욱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성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저지리 마을사업추진현황

기간	사업명	주요내용
2004	정보화마을	초고속 인터넷 구축
2006	농어촌체험휴양마을(테마마을)	체험장 조성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경관 정리
2008	권역단위종합정비(농촌마을종합개발) 웃뜨르 권역	웃뜨르 빛 센터, 저지게이트볼장, 락센터 등
2014.4~5	2014년 색깔있는 마을육성사업	주민견학 및 현장포럼
2014.5	자연생태우수마을(저지리)체험시설공사	텐트마루널 조성
2014.9~12	2014년 저지리 농촌체험마을정비사업	정자, 연자방아 정비 및 데크 시설
2015.3~4	자연생태우수마을생태체험시설사업(저지리)	안내판 재정비 4개소
2015.2~6	저지오름탐방로 정비 사업	저지오름탐방로 1식
2015.3~4	자연생태우수마을생태체험시설사업	안내판 재정비 4개소
2015.3~5	저지꽃자왈 탐방로조성사업	탐방로 106km 조성

출처 :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⁷⁸⁾

77) 양민숙·현택훈·김나영(2017), 『마을만들기우수사례집 2017 행복마을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pp.83-89.

2) 저지리 마을의 구성요소: 역사, 자연환경, 문화적 자원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원칙이 마을의 자원을 찾고 그 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저지리의 역사, 자연환경, 문화 자원의 특성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았다.

① 저지리 마을의 역사

저지리는 『탐라순력도』에 ‘堂旨/닥므르’,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행동지도』 등에는 ‘堂旨村/닥므르마을’, 일제 강점기의 지도에 造水理, 明伊洞/멍이눈, 水洞/물골 등으로 표기되어있다.⁷⁹⁾

탐라순력도나 탐라지도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서적(지도)으로서 닥므르라는 명칭으로 저지리가 그 시대 마을로 존재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저지리는 400여년 전 용선달리에서 진주이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수동, 뜬우영, 웃거리, 장화굿, 마중이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만고동 등지로 이주 전거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물이 매우 귀해 일반 해안 용천수를 사용할 수 없어 봉천수에 의존했던 마을이었으며 황무지였던 토지를 개척하여 지리적 악조건에도 농경문화가 많이 발달할 수 있던 마을이라고 전해진다.⁸⁰⁾

저지리는 조선 초기 제주관관 김치에 의하여 도내의 방리(坊里)를 정할 때 당지(堂旨)<닥므루> 혹은 저지(楮旨)리<닥-므루>로 출범하였다. 4.3사건 당시 저지국민학교는 1946년 03월 01일 저지리 1495번지 ‘소리왓’에서 개설 되었고 4.3사건이 일어나는 1948년 05월 13일 게릴라의 방화로 신축교사 전소 되었다. 이 때 민가 100여 채도 전소되어 제주 4.3사건의 대표적 피해 마을 중 하나였다. ⁸¹⁾

저지리는 적어도 400여년 전부터 마을을 이루어졌으며 비옥한 토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개척해 나아가며 그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저지리는 4.3사건 당시 큰 피해를 받아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와 아픔을 활용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8)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ejumaeul.or.kr> (검색일: 2020.05.13.)

79) 오창명(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연구총서 3』, 제주대학교 출판부, p.426.

80)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_마을 정보, 저지리 마을

81) 김찬흡(2014), 『제주향토문화사전』, 금성출판사, p.1608.

② 저지리 마을의 자연환경

저지리 마을은 제주지역의 중산간지역으로서 다양한 오름과 꽃자왈이 자리하고 있다. 꽃자왈이란 제주에 있는 독특한 지형을 일컫는 제주방언으로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과 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저지오름은 한경면 중산간 허허벌판에 우뚝 서 모진 하늬바람으로부터 마을을 감싸주고 있다. 과거 닥나무가 많아 닥뭍오름이라 불렸다. 저지오름은 산위에 새집처럼 둥그렇게 분화구가 패어있어 바깥 사면이 거의 솔숲인데 비해 분화구 내부는 낙엽수가 더러 상록가 섞인 자연림이다. 또 저지오름은 대부분 오름들이 비대칭적 경사를 갖는데 동심원적 등고선의 가지러한 사면을 가진 오름이다.⁸²⁾ 저지오름은 닥뭍오름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堂湄/ 당뭍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와 『제주군읍지』 등에는 楮湄岳/닥뭍오름 등으로 표기되어있다.⁸³⁾

이러한 저지리의 오름들과 꽃자왈은 자연문화를 활용한 교육, 문화적 자원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진다.

③ 저지리 마을의 문화적 자원

저지리 마을은 사람이 만든 문화자원들이 있다. 그중 ‘생각하는 정원’은 제주도 중산간 자연경관과 다양한 제주특산 관상목 분재로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어 저지리를 알리고 있다. 주변 한림공원, 산방산, 오설록 등을 거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연 35만 명이라 하니 그 수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의 장쩌민주석과 후진타오주석을 비롯 김용순 북한노동당비서 등이 찾아 더욱 저지리가 세계적 명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⁸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저지리에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마을로 예술가의 작품 및 작품을 만드는 장소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예술,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인마을은 각종 워크숍 또

82) 김종철(1995), 『오름나그네』, 높은오름, pp.336~339.

83) 오창명(1998), 앞의 책, p.139.

84) 김찬흡(2014), 앞의 책, p.677.

는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의 효과유발 관광자원화와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12월 미술관 건축물이 최초 착공된 이후에 화가인 김홍수가 20점의 미술작품을 기증하였고 박광진 화가는 194점의 작품을 기증하였다. 특히나 입주화와 지역 예술인의 적극적 도움으로 전시품 205여점을 확보했으며 2006년 9월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유명작가 현대조각 작품 9점을 확보하게 되었다.⁸⁵⁾

이처럼 문화예술인마을 조성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저지리에 살게되었고 저지리는 문화예술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저지리는 선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관광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문화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 저지리의 생태공동체 사업 현황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생태공동체의 구성 요소인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 친환경적 생활, 자연친화적 교육, 상향적 제도화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지리의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첫째,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 및 교양교육 그리고 협동 사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윗뜨르권역사업을 진행 중 마을주민들은, “마을을 위한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잠시 들리는 관광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생활한다” 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저지리의 마을이 알려지면서 점차 빈집이 부족하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공간이 부족함을 느꼈다. 저지리는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지리가 하고 있는 노력 중에는 소규모학교살리기운동이 있는데, 이를위해 9세대 공동주택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유지를 마을자금으로 매입하고 행정의 지원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⁸⁶⁾ 주민들은 개인의 경제적 풍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간 협력과 존중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85) 김찬흡(2014), 앞의 책, pp.1210-1211.

86) 양민숙·현택훈·김나영(2017),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집 2017 행복마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pp.87-89.

둘째, 친환경적 생활은 농업활동 및 1차산업과 관련된 생활환경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저지리 총면적 대비 1차산업 활용 면적을 조사하였다. 저지리의 총면적 1,509.00ha 중 밭 322.80ha, 목장 6.50ha, 임야 781.40ha, 과수원 128.10ha, 기타 270.20ha으로 구성된다. 기타 토지를 제외하여 1차산업을 위한 토지가 1,238.8로 82%를 차지한다. 주 수확 작물은 감귤소득이 전체 농가 70%이상 차지하며, 천혜향, 딸기, 키위, 보리, 마늘등이 있다. 또 저지리는 최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토마토, 오이 등을 생산과 축산, 화훼농업도 조금씩 이루어 지고 있다.⁸⁷⁾ 또 친환경적 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텃밭인데 저지리는 과거서부터 우영(밭)을 이용해 경제적 활동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집집마다 텃밭을 가꾸고 있고 이러한 문화는 현재에도 많이 남아있다. 마을 주민들은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지오름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식물들과 함께 자라며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05년 6월 생명의 숲으로 지정되기도 하였고 2007년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가지게 되었다.⁸⁸⁾

셋째, 자연친화적 교육은 현재 저지리에서 운영하는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마을 교육 사업을 조사하였다. 저지리는 2006년부터 농림부 사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마을의 특색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지리 체험마을은 남녀노소 좋아할 수 있는 무농약 딸기를 활용하여 딸기수확체험과 수제비 · 피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⁸⁹⁾ 마을에서 진행하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통해 농촌체험을 경험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친화의 중요성과 농촌생활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상향적 제도화에 대한 조사는 저지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저지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 마을주민 63명 중 59명(93%)은 인식하고 있다 하였고, 4명(7%)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 본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은 62명(98%)이고 반대하는 주민은 1명(2%)이다. 사업을 참여하는 주민의 인원은 5명(8%)이고. 사업을 참여하지

87)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jejumaeul.or.kr>. (검색일: 2020.05.31.)

88) 양민숙·현택훈·김나영(2017),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집 2017 행복마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pp.83-85.

89) 위의 책, p.89.

않지만 인지하는 주민의 인원은 51(81%), 관심없다고 답한 주민은 7명(11%)이다.⁹⁰⁾ 마을사업 중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만 연구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사업을 인식하고 있는 주민의 수가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연구를 보았을 때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수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저지리'의 '마을만들기사업'의 평가 및 제언

1) 저지리의 '마을만들기사업' 평가

어떠한 마을이든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나눈다고 하여도 주민간에 또는 주민과 행정의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 중 리더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지리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와 마을주민의 인터뷰 등으로 사업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긍정적 평가이다. 저지리는 한경면에 있는 마을 중 한라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자연과 예술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자연 예술마을로 유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로 300여개 운영되고 있는 전국 팜스테이 마을 중 저지리는 서귀포 성산읍 신흥리,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애월읍 유수암리와 더불어 팜스테이 마을을 진행하고 있다.⁹¹⁾ 저지리는 팜스테이 운영을 통해 제주의 농촌생활을 알리며 자연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또 저지리는 제주에서 선홍1리 동백동산·하례리 효돈천을 이어 세 번째로 곳자왈과 오름을 품고 있어 환경부 추진 생태관광 지정마을로 최종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생태관광 지역 지역제도'를 시행하는데 자연환경, 생태계, 지역문화, 관광,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저지리가 생태관

90) 문용철(2014), "제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지역의 주민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 p.90.

91) 『경인일보』, "[新팔도유람]색다른 제주, 팜스테이 마을 4選 제주에 살어리랏다... 도시여, 잠시만 안녕", 강재병기자, 발행일: 2019.08.01. (검색일: 2020.05.25.)

광 마을로 결정되었다.⁹²⁾ 이러한 내용들은 저지리의 생태, 지역문화 등 보존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마을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환경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태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첫째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마을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농산물 판매장과 작업장 등 각종 시설물이 세워졌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어 건물이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2018년 제주도의회에서 한 도의원은 예산을 지원한 농림부는 ‘관련 법을 근거로 방치된 시설물을 카페나 식당 등 용도전환을 허용치 않다면 건물의 노후화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하며 지적하였다.⁹³⁾ 처음에는 필요했던 시설이었지만 점차 사용이 적어지게 된다면 그 시설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새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면 긍정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용도전환은 현재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못하여 이는 풀어나가야할 숙제와도 같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잘 활용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지역의 환경오염이 될 것이며, 골칫거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될 것이다.

둘째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이 시작한지 18년이 지났지만 그 취지를 살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1999년 북제주군이 인구유입과 경영수익 창출 방안의 하나로 균유지를 이용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이다. 본 사업은 2001년 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2007년 예술인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2007년 9월 제주현대미술관이 마을 한복판에 개관했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저지예술인 문화지 관리 계획 수립 날짜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대부분 어긋나 있고 최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조례(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또한 2014년에 제정되어 2001년 마을 조성 기획했던 시기보다 13년이나 지나서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도출되는데, 제도적 미비는 예술인들의

92) 『뉴스시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환경부 생태관광마을 선정”, 조수진 기자, 발행일: 2018.01.29. (검색일: 2020.06.01.)

93) 『제주新보』, “공적자금 투입된 마을만들기 시설물 ‘방치’”, 좌동철기자, 발행일: 2019.03.05. (검색일 : 2020.05.25.)

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게 하며 식물원의 건축이 허용되었고 식물원에서 새를 기르면서 새소리에 대한 소음공해로 인해 창작의 방해를 받고 있다며 토로하는 작가도 생겼다. 또 일부 예술인들은 땅만 매입해 놓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2017년 마을 내 땅을 분양받은 예술인 48명 중 10여명은 아직 거주할 건물조차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⁹⁴⁾

이처럼 저지예술인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지리 마을은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해 가야 할 시점이지만 주민들과 도민과 예술인 마을의 갈등은 오히려 공생적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갈등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지리 마을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현재 마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저지리의 이장님과 사무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마을만들기사업의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는 상황에 따라 이장님과 사무장님 모두 같은 자리에서 진행하였으며 공통 질문에 각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생태공동체의식에 구성요소에서 “친환경적인 생활”과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의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생태공동체의식 첫번째 구성요소인 이해와 존중에 인간상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일어나는 갈등과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마을마다 특성이 있으며 마을에 마을자생단체 또는 법인체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서로 환경적 부분에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로 인해 마찰이 생긴다 하였다. 덧붙여 저지리의 경우 아직까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한 특별히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 하였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무장님은 이주민들이 아직까진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며 가끔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설치한 건물(줄여서 “시설물”)이 활용되지 않아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였다. 위에 들었던 답변에 따라 본 연구자는 신문에서 나왔듯 시설물이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았는가 질문하였다.⁹⁵⁾

94) 『제주의소리』, “땅만 매입, 국적불명 새소리...길잃은 제주 예술인마을”, 문준영기자, 발행일: 2017.06.09. (검색일: 2020.06.01.)

95)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설치했던 건물이 활용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문(위의 글) 참고.

이 질문에 보조금으로 하였던 사업이다 보니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행정, 입법, 마을 등 서서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대답하였다.

다음 질문은, 마을 주민들의 평가 및 참여도를 질의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가장 먼저 했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과거에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였지만 현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며 다양한 교육 및 회의를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이 선주민과 이주민의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알기 위해 저지리 본 마을과 저지예술인마을의 이주작가는 한 마을의 주민이고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저지리 본 마을과 저지예술인마을이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대답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유명인들이 많으며 저지예술인마을은 잠시 쉬러 오는 공간으로 활용되다 보니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저지리 주민들과 함께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는다고 했다. 처음 설립 당시에도 마을과 함께하는 부분보단 예술인들의 별장이라는 인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도 부족하여 부정적인 관점에서 저지예술인마을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2019년 마을과 지자체 문화정책과 그리고 예술인마을과 함께 어울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돼지열병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내년에는 진행할 예정이라 했다. 화합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에 두분 다 신인작가들이 많이 들어오면 마을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저지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하지 않지만 한 달에 2회 경로당에 모여 밥을 나누어 먹거나 어버이날 행사 등 동별로 어울리는 행사를 진행하며 저청초등학교에서 총동창회와 함께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저지리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저청초등학교 출신이라 마을행사처럼 진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저지리에서 꽃자왈 축제를 진행하여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전통문화 보존에 힘쓰고 있다 하였다.

다음으로 생태공동체의식에 구성 요소인 친환경적인 생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텃밭가꾸기 및 친환경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과거 시장이 없었을 당시 집에 짜투리 장소를 남겨 텃밭에 작물을 심어 주민들간 교환하기도 먹기도 하였다면 이러한 우영밭이 현재에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또 현재 저지오름이 걷기 편하게 산책로를 구성하였고 자연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오름을 운동 삼아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대답하였다.

마지막 질의로 미래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함에 더욱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이장님은 현재 저지리는 농촌거점중심사업에 문화로중심사업 선정되었으며 제주 농촌의 가장 큰 문제인 문화, 교육, 복지 시설의 부족으로 젊은 층들이 떠나고 있는데 1차 산업과 접목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적, 문화적 향유 등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젊은층을 더욱 끌어오고 싶다고 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지리의 문화, 자연 자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하였다. 사무장님 또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사업을 지양하며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 행사, 축제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으며 저지리에 문제 중 하나인 자연, 문화 등 자원들은 많으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을 대표하는 자원을 찾고 상품화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저지리 마을의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사업을 바라보는 시선, 저지리마을, 저지예술인마을 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지리 마을에 문제점, 해결방안, 주민들의 노력 등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다.

2)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의 미래가치 및 제언

저지리마을을 조사하였던 것을 토대로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미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를 찾아보았다. 저지리 뿐 아니라 농어촌 마을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생태공동체의식함양으로 마을만들기사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마을 청년층의 유출

2018년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만 18~74세 취업

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에서 가장 많은 업종(산업) 농림어업이 1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현 직업 종사자 중 15.1%로 서비스 종사자 다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제주의 농업의 비율은 굉장히 높다. 그러나 18~64세 취업 희망 업종에서 3위 안에 농업에는 없다. 그리고 제주의 농업활동의 비율이 만50~64세의 비율이 22.9%이고 만65~74세의 비율이 48.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만 50~74세까지 비율이 71.8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 고령화 사회로 청년층의 유출은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농촌에 아주 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유출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문화, 교육, 복지시설의 부족이다. 이에 다양한 문화 예술적 활동과 더불어 복지 혜택 확대 등으로 농촌생활에서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젊은 층의 사람들이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현재 친환경적인 생활을 위하여 귀농, 귀촌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에 점차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친환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에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며 각 마을마다 문화, 교육, 복지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② 농촌 경제적 문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측 조사했던 결과를 보게되면 2020년 마늘 재배면적이 지난해 2만7689ha보다 9.4% 줄었던 2만5090ha 지만 평년 2만4603ha보다 2%늘어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 불안의 우려로 500ha 규모 산지폐기를 결정했다.⁹⁶⁾ 이처럼 농촌의 경제적 문제는 항상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너무 심해 농업을 본업으로 생활하는 농업인들에게 불안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농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산업과 또다른 산업의 융복합적 산업이 필요하다. 융복합 산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 경제 순환을 만들어내어야 하며 이를 마을만들기사업에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다. 생태를 보존하는 프로그램 과 지속적인 자연친화적인 교육 개발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여 홍보, 축제, 행사, 생활안정 등 다양한 산업의 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96)제주신보,“마늘 산지폐기에 농민들 분노”, 김두영기자, 발행일 : 2020.03.18, 검색일 : 2020.06.09

③ 관광 산업의 변화

관광산업의 변화로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홍보미흡, 교통문제 등으로 제주의 관광을 온 관광객들은 대표적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하는 여행객들이 많고 마을마다 여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마을중심적인 관광산업의 변화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관광테마를 만들어 더욱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주민들이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사업하여 마을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강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 사람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마을에서 또한 친환경적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며 만족도 또한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 가장 적합한 생태공동체적의식을 함양시켜야 하는데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공생적 관계로 협동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생태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리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생태공동체의식을 함양한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알리고 합리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론적 정리를 통해 생태공동체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태공동체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해와 존중의 인간상, 친환경적 생활, 자연친화적 교육, 상향적 제도화 등 4가지 생태공동체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 및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내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조사·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의 의미와 현재 진행 방향을 정리하였다. 김진아(2013)에 따르면 주민 스스로 삶의 장소인 마을의 주인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불어 사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마을만들기라고 정의하였다.⁹⁷⁾ 이에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주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실행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제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조례를 근거하여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원함을 핵심 사항으로 정책이 진행된다. 이에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지원과 정책개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들과 마을에 불필요한 정책은 줄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본 연구는 ‘저지리’를 중심으로 생태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 저지리는 정보화마을사업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저지곶자왓 탐방로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

97) 김진아(2013),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pp.24-25

이다. 또 저지리는 탐라순력도 등 고지도에 이름이 남는 것으로 보아 전통성이 있는 마을이다. 또한, 곳자왈과 많은 오름이 있는 자연의 마을이며 저지예술인마을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과 문화예술의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저지리의 마을주민들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저지리는 전국 300여개 운영되는 팜스테이 마을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의 농촌 생활 및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홍보하고 있다. 또 마을주민들은 생태주의적의식을 가지며 자연환경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쓰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저지리는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마을⁹⁸⁾로 선정되었다.

반면, 마을만들기사업 진행시 필요하다고 합의되어 설치한 시설물이 결국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주민들은 대안을 찾고자 시작 의도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현 제도상으로는 용도 전환이 불가하여 이마저 무산되었다. 결국 시설물은 마을 안에 흉물이 되었고 녹슬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또 저지예술인마을의 경우 처음 조성될 당시 미비한 제도적 장치와 계획의 불이행 등으로 저지리 마을주민과 행정과의 갈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지리 주민과 지자체는 활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대안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저지리마을과 저지리문화예술인마을의 관계 형성을 위해 두 마을 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로 상생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저지리 마을주민들의 노력은 마을주민간의 관계회복을 하고 미래에 자연문화마을에 어울리는 마을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공동체 관점에서 저지리 마을만들기사업을 살펴본 결과 세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체는 마을주민이다. 마을주민은 마을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마을의 문제를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주인 의식이 높아지고 자립성이 향상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98) 생태관광마을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고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둘째, 저지리는 1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한다. 저지리는 토지 80% 이상이 1차 산업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은 1차산업으로 활용하는 토지이용뿐 아닌 과거부터 내려오던 텃밭 문화인 우영밭을 가꾸어 친환경적인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지리는 농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농촌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학생들에게 관광·교육적 효과를 주고 있다. 1차산업의 친환경적 모습을 토대로 마을의 리더들은 추후 진행할 마을만들기사업의 방향으로 1차산업과 융합한 문화·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마을주민과 지자체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주민간의 갈등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을의 분쟁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마을공동체가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지자체는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마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원활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간의 소통과 교육을 통해 서로가 이해하며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증진하며 마을의 자원을 찾아 경제적 효과를 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도농격차 등 다양한 문제로 전통적 공동체는 축소되며 침체되거나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안적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국제적 사회문제로 인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적 공동체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비추어 생태 공생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생태공동체의식이 함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실행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자원을 찾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태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에서의 마을주민과 지자체의 생태공동체에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參考文獻)

1. 단행본 및 편·역서

- 김종철(1995), 『제주도 기생화산 답사기 3』, 높은오름.
- 김찬흡(2014), 『제주 향토문화 사전: 역사·지리·민속·교육·관광·인물』, 금성문화사.
- 김항원(1998), 『제주학연구총서 2』, 제주대학교 출판부.
- 리처드니스벳(2004), 『생각의 지도』, 김영사.
- 조추용·김양이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창지사.
- 양영오(2013), 『제주발전연구총서 14』, 제주발전연구원.
- 오창명(1998), 『제주학연구총서 3』, 제주대학교 출판부.
- 유수정·최경석(2014),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로도스.
-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 임흥빈·조정옥 외(200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국중광·박설호 엮음,
도서출판 월인.
- 하르트무트로자·라스게르텐바흐 외(2017),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2. 학위 논문 및 학술·일반논문

- 고수희(2017),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진숙(2019), 「도시관광 재생사업에서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장소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덕은(2020),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진(2010),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준(2020), 「신석기시대 뎀석기 기술과 생업활동: 한강 유역 주거지 유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우진(2011), 「아리스토텔레스와 공·맹에 있어서 가족과 공동체: 공동체주의 담론의 맥락에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아(2015),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 공동체의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진아(2013),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훈(2019),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 지역 관광환경요인, 지역거버넌스 요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숙(2017), 「일본의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혁신주체·기반 이용·민관협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홍석(1998), 「한국적 공동체의 형성배경과 구성원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용철(2014), 「제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지역의 주민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강오(2020),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향숙(2012), 「심층생태주의 철학에 기초한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 아르네 내스의 환경철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기호(2015), 「공동체마을의 사회자본과 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소상영(2013),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소은숙(2013),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사회복지이념 연구」, 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영경(2017), 「1930년대 바우하우스의 미국적 수용 연구: 예술교육을 통한 공동체 구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지선(2012), 「대안적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 성미산마을축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진동(2008),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자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종욱(2019), 「생태주의 대학 이념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원혜영(2007), 「초기불교의 공동체 연구: 열반경에 나타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광동(2014), 「농촌마을의 대안 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상주 00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근미(2019),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한 요인에 관한 연구: 안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규(2020), 「동북아시아 신석기 이론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미(2019), 「산업혁명과 특허 패러다임의 전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현(2016), 「웬델 벨의 생태공동체와 살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현(2012),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동성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주(2011),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영은(2015), 「농촌체험마을과 연계를 통한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문희(2019), 「마을공동체 구성과 차이·공존의 장소 정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채성만(2020),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영준(2015),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차원의 공간분석방법론 구축 및 적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황만구(2018),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법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황한영(2014), 「한국성씨유래담의 유형과 가문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법률 및 조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시행 2019.11.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시행 2019.11.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 2020.04.0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 2016.07.07.]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시행 2016.11.22.]

웅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시행 2019.01.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제주특별법) [시행 2020.03.0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시행 2019.12.31.]

4. 시행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5. 신문 자료

강세진, 『오마이뉴스』(2020.02.25.), “마을공동체 활성화, 못 이룬 꿈 계속 꿀 수 있을까?”, <http://www.ohmynews.com>(검색일:2020.04.15)

김민, 『동아일보』(2020.02.26.), “‘할망 신화’ 앞세우고... 3년만에 찾아오는 제주비엔날레”, <http://www.donga.com/news>(검색일: 2020.04.20).

이동건, 『제주의소리』(2020.04.20.), “제주시, 6개 마을 농산어촌개발 사업 본격 추진”, <http://www.jejusori.net/news>(검색일: 2020.04.20).

정기환, 『인천일보』(2020.04.17.), “[지속가능 인천] 간격있는 마을공동체 꿈꾸며”, <http://www.incheonilbo.com/news>(검색일: 2019.04.17).

허경윤, 『한국대학신문』(2020.04.13.),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소중함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http://news.unn.net/news>(검색일:2020.04.20).

6. 인터넷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어촌정보 포털서비스, <https://www.alimi.or.kr>

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nhcenter.jeu.go.kr>.

온나라 정책연구(PRISM), <http://www.prism.go.kr>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https://en.unesco.org>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http://www.jejumaeul.or.kr>

제주 저지예술마을, <http://jeoji.invil.org>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u.go.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www.council.jeu.kr>.

제주4·3연구소, <http://www.jeu43.org>.

제주4·3평화재단, <https://jeu43peace.or.kr>.

【Abstract】

A study on making Jeju-type village project to foster
ecological community awareness
- Focused on 'Jeoji-ri' -

Do-Hyeon Kim

Department of Nation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Advisor Professor Seung-Hee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ary to cultivate the awareness of ecological community in order to make village project which is currently on going in a village. Furthermore, I am suggesting it as one of the ways of the project to cultivate awareness of ecological community through the exploration. The communities in Korea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history, ideology, religion, and the state. The forming of community in village has been formed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villagers in life of agriculture. later, through industrialization, the way of life and work have changed, and the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became smaller. Since. there has been various community appears. Recently the form of community of village has been settled through making village project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economical development utilizing the resources of village. For that reason, the village-making project is a community-building activity,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type of village community should be formed. The necessary of discussion on the forming the community of village

increases as the sense of crisis on the community increases.

Since industrialization, humanity has developed by adapting to a rapidly changing society. Due to this industrialization, humanity has gained convenienc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whil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have occurred. As a result, natural disasters and ecosystem changes have caused negative emotions such as conflict and anxiety among members of the community. This worldwide social problems have increased the sense of crisis in community of local society.

In this situation, humanity has seen limitations in forming a community and realized the necessity a community that can form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Through this study, an ecological community perspective in the current society in which environmental problems continue to appear the village community conducting village-making projects, and it is suggested that this could be a solution. The ecological community defined in this study means the community viewed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When the villagers who are members of the village form a village community, the human and human living environment and it was called community 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the village community is formed, members of the village formed a community. The village community continued to change on the various disasters and developments. Currently, villagers are a way to form a village community and increase the capacity of villagers. For the development of villages and towns, the village-making project is operated with the support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rough village-making projects, villagers searched for resources of villages themselves, and got the opportunity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mmarizes the consciousness of the ecological community and the village-building project.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is project centered on Jeojiri, a village that is carrying out a making project and found a positive

impact. On this study, proposition and direction which various villages have in common such as population escaping, economic problems, and changes in the tourism industry were proposed. As the necessity for the village-making project grew,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are putting effort and attention. that needs to proceed with the village project. Villagers and local communities are trying to solv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o carry out a village-building project with ecological collective awareness. So that the Jeju-type village making project that humans and nature can form a symbiotic relationship will be an example as a model.

Keywords: ecological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ecological community consciousness, village making project, Jejiri,